

西風勇麻傳
서풍용마전

나레이션v.o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자본주의에 휩쓸려 안정만 추구하기 바쁜 사람들.
꿈을 찾을 시간도 없이, 도전을 향한 열정은 식어만 가는데...
그러나 지금 여기,
느슨해진 우리의 베틀에 긴장감을 주는 한 소녀가 온다!

배경에 깔린 지구의 모습이 '1통'패로 바뀐다.
굵은 필기체로 글자 날아오는 연출과 함께

title 西風勇麻傳 **시중용마전**

1. 교실 / 낮

insert_ 학교 앞

초가을의 학교. 모의고사를 끝낸 아이들 몇몇이 왁자지껄 교실을 나선다.
방과 후. 책상에 모여 앉은 하늬(18, 여)와 지혜(18, 여), 은지(18, 여), 경은(18, 여)
모여서 시험지 채점을 한다.
하늬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시험지에 선을 짹짹 긁는다.

하늬 (한숨을 내쉬며) 답이 없네, 답이 없어...
은지 (하늬의 시험지를 슬쩍 보고는 혼잣말로) 헉, 완전 장마다, 장마.
지혜 답이 없긴 왜 없냐? 그러니까 공부 좀 하고 살아. (혀를 찬다)

하늬의 시험지를 보는 경은.

insert- 하늬의 시험지

경은 와, 진짜 심각하네. 짹으려는 노력이라도 해라. (비웃으며)
하늬 아, 보지 마! (시험지를 가린다)

하늬 가방에 시험지를 쑤셔 넣는다.
자리를 박차고 훌훌 일어나는 하늬.

하늬 됐다. 시험도 끝났는데 놀아야지. 자, 우리 집으로 가자~ (노래를 부르며)

하늬 앞장서면 친구들 뒤따라 집으로 향한다.

2. 집 안 / 낮

소파에 모여 앉는 친구들.

지혜 근데 우리 영화는 뭐 볼 거야?
하늬 (리모컨을 집으며) 뭘 고민하고 앉았어. 그냥 암거나 봐.

버튼을 눌러 볼 영화를 찾던 중 <신의 한 수> 썸네일을 발견한다.

하늬 신의 한 수? 제목 죽이네.

영화 시작하고 시간이 흘러 주인공이 마작 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늬 뭐하는 거야 저게?
지혜 저것도 모르냐? 마작이잖아.
은지 마작? 어떻게 하는 건데?
지혜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저걸 이제 순서대로... (어물거린다)

주인공이 패를 정리하는 장면을 보며 하늬 뭔가를 알아낸 듯 점점 눈이 커진다.
집중하는 모습.

하늬 n (화면 속 패를 읊으며) 일일일... 일이삼... 오육... 칠팔구, 구구...
그럼... 다음은 4?

주인공이 한자 4가 새겨진 패를 뽑자 모양이 완성되며 패를 쓰러뜨려 보여준다.
동시에 화면속 남자 '구,구련보등...!' 하며 놀라는 장면.
그 모습을 보며 감격한 듯 웃음짓는 하늬.

하늬 답이...있네?

하늬 냇을 놓고 화면을 쳐다보는 가운데 친구들 옆에서 저게 뭐냐며 웅성댄다.

3. 하늬 방 / 교실 교차 / 저녁

인터넷 검색창에 '마작'을 검색하는 하늬. 관련 문서를 보며 스크롤을 내린다.

-인터넷 자료가 띄워진 모니터. 스크롤을 내리자 나오는 관련 이미지

하늬n (화면을 읽으며) 마작은 중국 명나라에서 기원한 4인용 게임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놀이 중 가장 복잡하다고 일컬어질 만큼 방법과

규칙이 다양하다.

하지만 기술 이상으로 순간의 판단력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심법’ 이 중요하게 작용해 초보자도 숙련자를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

멈칫하는 하늬. 눈이 커진다.

하늬 인터넷으로 마작의 규칙을 찾아본다.

패가 섞여있는 사진을 보고도 머릿속에서 저절로 패가 맞춰지는 모습이 떠오른다.

cut to 교실

-필기하는 아이들 사이 마작 족보를 필기하고 있는 하늬의 모습

-지우개에 마작패 무늬를 그린 걸로 마작 연습을 하는 하늬

-마작 경기 영상을 찾아보고 있는 하늬

4. 교실 안 / 낮

책상 위에 올려진 마작패 세트와 친구들 앞에 놓인 자을동아리 신청서.

지혜 (책상 위를 보며) 그래서... 마작부를 만들겠다고?
하늬 (신이 나서)
자, 네 명 모여야 하니까 빨리 다 써. (신청서 종이를 들이밀며)
은지 그, 근데 그거 학교에서 해도 괜찮아...?
막, 경찰 찾아오고 그러면 어떡해...? (걱정스러운 듯)
하늬 (발끈해서) 야, 이거 공인된 스포츠 맞거든!
한국 마작연맹이라고 들어는 보셨나? 거기서 개최하는 이번 KML리그에
팀으로 나가는 거야.
경은 (핸드폰을 쳐다보다 심드렁한 듯) 별 게 다 있네.
은지 근데 나 학원도 가야하고.. 동아리 할 시간이...
지혜 맞아. 기말고사까지 17일하고 18시간 37분 남았어. 넌 공부 안 해?
하늬 (생각이 있는 듯 웃으며) 들어봐 친구들아. 우리가 나가서? 만약 우승을 해.
경은 하겠나?
하늬 아오, 들어보라니깐! 흠흠, 우승을 하면, 생기부에... 어떻게 기록될까?
특기사항에 두뇌 스포츠 대회 일 등, 이런 거 하나 딱!
크으, 이 얼마나 유니크하냐. 바로 점수 먹고 들어가지.

‘생기부’라는 말에 반응하는 친구들. 친구들과 하늬 사이 눈빛이 오간다.

cut to 교무실

선생님 동아리 신청서에 ‘광’ 하고 도장을 찍어 준다.

하늬 감사합니다!

밝게 웃는 하늬.

5. 지하실 / 낮

책상에 앉아 마작을 시작하는 친구들.

능숙한 하늬와 달리 친구들 패를 정리하는 손길이 영 어정쩡하다.

지혜 (손부채질을 하며) 어우 무슨 먼지가... 이런 텔 쓰라고 쥐?
하늬 학교에 남은 교실이 없다잖냐. 동방 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줄 알어.
 (책상에 앉으며) 야, 빨리 시작하자!

따라 앉는 친구들. 패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된다.

하늬n 마작의 원리는 간단하다면 간단하다. 세 종류의 숫자패와 일곱 개의 자패로
 같은 것끼리 모이거나 이어지는 숫자로 만들어진 몸통 네 개와 머리
 하늬를 모아 용을 완성하는 것.

-빠른 손놀림으로 완성된 패를 보여준다

하늬n 다른 사람 거를 가져와 몸통을 만드는 치, 뽕.
 같은 패가 네 개 모이면 깡!

-지혜의 치, 뽕, 깡 부르기

하늬n 좋은 모양으로 완성할수록 받는 점수가 달라지는데, 이걸 '역'이라고 한다.
 우리가 하는 일본 리치마작에는 패가 완성 직전일 때
 리치라고 외치고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규칙이 있다.

-리치 선언을 하는 것은

하늬n 이때 다른 사람 걸 가져와 완성하면 룬.
 내가 뽑아온 걸로 완성하면 쯤모.

그 너머

-쯤모하는 은지.

패를 놓히려고 하자 패들이 튀어 여기저기 흩어진다.

동아리실 벽에 마작 족보를 적어놓은 종지와 마작패 장식들이 하나 둘 늘어간다.
갈수록 친구들이 패를 정리하는 손길이 능숙해진다.

cut to 시간경과 (며칠 후)

마작을 하는 친구들.

이제는 제법 능숙해진 손놀림으로 패를 가져가고 정리하기를 반복한다.

동아리실도 백열등 하나만 켜진 채로 비장한 분위기를 풍긴다.

경은의 차례가 돌아오고, 패를 뽑은 경은의 표정이 밝아진다.

경은 (점수봉을 놓으며) 리치!
하늬 (수상쩍게 웃고는) 룬. (패를 쓰러트린다)
경은 (하늬의 손목을 획 붙잡고) 동작 그만. 밀장빼기냐?
하늬 (잡힌 손목이 아픈 듯) 아! 아니, 마작에 밀장빼기가 어딴...

하늬의 손목을 팍 꺾는 경은.

하늬 으아악!
지혜 야, 야. 적당히 해라.
은지 애들아, 싸우지 마... (어쩔 줄 몰라한다)
하늬 (아픈 손목을 어루만지고) 어이구~ 이제 너네랑은 상대를 못해주겠다.
 (비아냥거리며) 이거 수준 안 맞아서 어찌냐?
지혜 잘 하기는. 그냥 운이 좋은 거지.
하늬 운도 실력이거든요~ 다음판도 빨리빨리! (패를 테이블 가운데로 모은다)
경은 (핸드폰을 쳐다보며)됐어. 짜피 니만 이길거잖아.
하늬 뭐야. 안 하게?

하늬 친구들을 살핀다. 친구들 귀찮아하며 안 하려는 기색.

영어 단어장을 보는 지혜. 경은은 핸드폰을 보고, 은지는 가만히 패를 만지작거린다.

입모양으로 '미안'이라 말해 보이는 은지.

하늬 야 이것들아! 진짜 이러기야?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는) 그래, 됐다! 너네끼리 연습이나 하고 있어.
 이 몸은... (비장하게) 새로운 적을 찾아 나선다.

동아리실을 나가는 하늬.

6. 마장 / 낮

-마장 상가 건물을 올려다보는 하늬

하늬 문을 열고 들어온다. 자리를 안내받고 쭈뼛거리며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자 혼자만 유독 어린 하늬의 모습을 뵈히 쳐다본다.

하늬 눈빛을 살피며 침을 삼키고는 손에 땀이 나 옷자락에 슬쩍 닦는다.

cut to

- 긴장한 바람에 영상패를 넘어뜨리는 실수를 하는 하늬.

눈치를 보며 패를 버리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빼앗기고 만다.

하늬v.o 내가 왜 이러냐. (눈을 질끈 감으며)
집중하자!! 아직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cut to

- 심호흡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하늬. 날카로운 눈빛으로 패를 살핀다.

하늬v.o 이거다.

패를 뽑자마자 손에 쥐어져 있는 오름패.

만관 화료를 성공해 가까스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난다.

cut to

-주변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자신의 패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하늬.

계속해서 점수를 벌어들이며 기세를 떨친다.

cut to

마지막 국에 접어든다.

게임이 점점 진행될수록 고뇌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유만만한 하늬.

그런 하늬의 모습을 맞은편에 앉은 작남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하늬 쯤모! (패를 놓히며)
아저씨1 (놀란다) 아니 이게 몇 번째야?
아저씨2 어허~ 어린 친구가 왜 이리 잘해?
아저씨1 (화가 난 듯) 에이, 오늘은 영 아니다. 딴 데 가서 합시다.

아저씨들 투덜거리며 일어나 마장을 나온다.

하늬도 일어나려는 순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작남(60, 남)과 눈이 마주친다.

앉아있는 작남 범상치 않은 기운을 내뿜는 듯한 모습.

작남 멋진 대국이였다.
하늬 아 네... 감사합니다?
작남 많은 이들과 겨뤘지만 남다른 기백이 있단 말이야... 스승이 누구지?
하늬 유튜브인데요.
작남 그래... 하지만 내가 그 유튜브라는 자도 모를 진정한 '마작의 도'를 알려 주겠다.
하늬 네... 근데... 누구... (입모양)
작남 자네는 마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하늬 (잠시 고민하고는) 음... 운이요?
작남 아니 아니야... (꽤 하나를 가볍게 버리고) 바로 버리는 실력이다.

-마작패를 무작위로 뽑아 빠른 손놀림으로 패를 완성하는 작남

작남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놔 줘야 할 것은 분명 있어.
 있는 것에 연연하면 떨어질 뿐. 마지막에 나는 건 버리고 온 용이다.
 마작은 내려놓는 각오를 배우기 위해 하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앞으로 가기 위해 무엇을 뒤로할지...
 자네, 이름은 뭐가?
하늬 마하닙니다.
작남 하늬인가... 서쪽바람의 천재로군.
 이 판은 만만치 않아. 앞으로 건투를 비네.
 (v.o) 언젠가 다시 겨루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

그때 울리는 하늬의 핸드폰. 한국마작연맹에서 온 KMJ리그 대회 일정 안내 메시지.
하늬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 급히 동아리실로 달려간다.

7. 동아리방 / 해 질 때 짬

하늬 동아리실 물을 벌컥 연다.
각자 할 일을 하던 중 놀라서 하늬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친구들.

하늬 애들아! 대회 일정 나왔어! (숨을 몰아쉬며)

cut to 핸드폰 화면

하늬 v.o 일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짹세게 하면 문제 없어.

지혜 하늬가 보여주는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다 당황한 표정.

지혜 근데, 이거 우리 시험 날 아냐?
하늬 앵?

동아리실에 흐르는 정적.

insert 기말고사 날짜가 적힌 꼬깃꼬깃한 학사일정표

경은이 동아리실을 나서려 하자 하늬 그런 경은을 붙잡는다.

하늬 어디 가! 기말 까짓 거 안 보면 되는 거 아냐? 우리 대회 준비 열심히 했잖아.
 나 잘 하는 거 알지? 충분히 할 수 있어!
경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지금 우리한테 대회가 중요해?
은지 (경은의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나, 나도 학원 시간 다 돼서... 진짜 미안
 (눈치를 보며) 그리고... 준비했다고 해도,
 나가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잖아?

경은과 은지 나가면 지혜도 동아리실을 나오려 한다.
하늬 처량한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본다.

하늬 지혜야..
지혜 당장 뭘 얻으려면 버려야 하는 것도 있잖아.
 넌 운에 미래를 맡길 거야? (하늬를 보고) 하늬야, 우리 대학 가야지.

지혜 뒤돌아 나선다. 부실에 혼자 남겨진 하늬.
책상 위에 '서'풍패 하나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8. 독서실 / 교실(아침) 교차 / 저녁

하늬 책상 위에 교과서를 올려놓는다. 가방에서 책을 빼다 딸려 나오는 마작 교재. 하늬 책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휘젓고 마작 책을 급하게 도로 집어넣는다.
한숨을 한 번 깊게 내쉬고 교과서를 펼쳐 공부를 시작하는 하늬.

cut to 교실
교탁 앞에 서서 말하는 담임선생님.

답임 이제 시험 일주일 남았지?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일주일만
죽었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cut to 독서실

엎드려 공부하는 하늬. 책상 위에는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쌓여 있다.

문제를 풀다 지우개를 집어들자 순간 지우개가 백패로 변해 있다.

놀라서 눈을 비비자 도로 돌아온 지우개. 하늬 펜을 내려놓고 지친 채로

핸드폰을 집어든다.

그러자 화면에 가득 차는 마작 관련 영상들. 그 중 마작계의 전설 작남 작사를 소개하는

썸네일을 발견한다. 썸네일의 젊은 작남을 보고 눈빛이 바뀌는 하늬.

그러던 중 갑자기 핸드폰이 울린다. 반장에게서 온 전화.

하늬 여보세요?

반장 어, 하늬야. 너네 동아리, 폐부할거야?

안 쓸거면 그냥 방 빼라고 쌤이 그러는데? 거기 청소 도구 들여놔야 한다고

9. 동아리실 / 해 질 때 썸

하늬 동아리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꾸며 놓은 동아리실을 눈으로 훑고

마작 테이블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먼지가 낀 패를 입으로 후후 분 뒤 혼자서 패를
쌓아 올린다. 패를 뽑고 정리하자 조잡한 패가 나온다.

하늬 (작게 중얼거리며) 답이 없네, 답이 없어...

혼자 패를 뽑고 버리길 반복하다 멈춘다. 뭔가를 굳게 결심한 표정. 버리려던 패를 도
로 가져다 놓고 다른 패를 버린다. 눈을 굴리며 골똥히 패를 버려 가는 하늬. 조금 뒤
'국사무쌍¹⁾' 완성 전 상태가 된다. 눈을 감고 패를 뽑아오는 하늬.

손에 서 풍패가 쥐어져 있다. 완성된 국사무쌍.

10. 학교 / 아침

교실. 아이들이 시험 준비에 분주하다. 하늬 책상에 앉아 열심히 노트를 보고 있다.

하늬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은지.

은지 하늬야, 공부 많이 했어?

1) 국사무쌍(國土無雙): 나라 안에 겨를 자가 없는 뛰어난 인물.

마작에서의 3대 역만(役滿, 가장 높은 점수) 중 두 번째.

은지 노트를 보자 빼곡히 적혀 있는 마작 필기. 놀라서 빙찌는 은지.

하늬 (웃으며) 이제 갈 시간이야.
은지 가다니, 어딜...?
경은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쳐들며) 너 설마...
지혜 야! 마하늬 너 미쳤어? 8분 59초 뒤에 시험 시작이라고!

말리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하늬 교실을 나선다.

하늬 잘 하고 올게!

교실 문 너머로 웃으며 손을 흔드는 하늬.
교문. 학교를 나서며 화려한 스카잔으로 갈아입는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대회장에 향한다.

11. 대회장 / 저녁

대회장에 모인 하늬와 선수들.

사회자 v.o 전국외 작사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제 29회 KMJ 리그
개인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울려퍼지는 환호성과 함께 시작되는 게임.
-사람들을 이기는 하늬
-대진표 속 하늬의 이름이 위로 치고 올라간다.

사회자 마하늬 선수, 연승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라곤 믿기지 않는 경이로운 실력입니다!!
이대로 결승까지 치고 올라가는데요! 과연 전설의 작사, 작남과의 승부에서도
기세를 떨칠 수 있을 것인가?!

결승전. 어두운 실기장 안. 하늬와 겨룰 선수 세 명이 미리 테이블에 앉아 있다.
테이블에 다가서는 하늬 작남과 눈이 마주친다. 작남 선글라스를 벗는다.

작남 (미소 지으며)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다.
하늬 (자리에 앉는다) 시작하시죠
작남 (하늬의 얼굴을 보며) 허허... 큰 거 하나 버리고 온 눈빛인데 그래.

피식 웃는 하늬.

insert

시험을 보는 친구들. 중간의 하늬 자리만 텅 비어 있다.

주사위를 굴리고 하늬가 첫 번째 순서가 된다.

하늬 상대방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모습.

초반 나는데 성공해 기세를 잡는 하늬.

이후 상당한 실력의 작남에게 점수를 빼앗긴다. 질세라 잇따라 화료하는 상대들.

게임을 하며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는 작남에 반해 하늬는 표정이 밝아졌다

나빠지기를 반복한다. 그런 하늬를 보며 가소롭다는 듯 웃는 작남.

다급한 마음에 낮은 점수로 나는 하늬.

다음 국에서 작남에게 만관을 직격당하고 만다. 점수를 빼앗기고 하늬에게 찾아온 위기.

하늬 고뇌하다 이내 뭔가를 떠올린다.

insert 동아리실. 마작을 하는 친구들.

하늬 야~ 1000점, 2000점 야금야금 벌면 뭐가 되냐? (패를 탁 내려놓고는)

 마작의 생명은 뭐다? 멋이다. 난 2)만관 아래면 화료 안 해.

지혜 (기가 찬 듯) 쏘를 한다 쏘를 해. 점수 벌면 그만이지 뭐 그런 걸 따져?

 (패를 내려놓는다)

하늬 그건 두고 보시지. 결국 남는 건..(패를 뽑아오고)

 멋이다 이 말이야! 쯔모! (패를 넘어뜨린다) 리핑탕 도라2 해서 만관!!

즐겁게 웃는 하늬의 모습.

하늬 기억을 떠올리고는 눈을 질끈 감는다.

하늬 (혼잣말로) 그래, 지금은 이런 걸 노릴 때가 아니야..!

앞으로 1국. 하늬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다잡는다. 힘이 들어간 눈빛.

신중히 패를 버리는 하늬. 동아리실에서 홀로 버린 패와 같아지며

국싸무쌍 형태가 완성되어 간다. '서'단기 상태.

하늬가 리치하자 추격 리치를 거는 작남.

둘 사이 팽팽한 신경전이 오간다. 두 바퀴가 오간 후 쯔모화료 하는 하늬.

하늬 **쯔모 국사무쌍, 32000.**

2) 마작에서 4판(鬪)점수. 8000점에 해당한다.

상대 선수들 놀란다. 하늬 역전 1등.

사회자 역전입니다!! 역전!! 마하늬 선수 역만으로 역전승입니다!!

상대 1 (주먹을 짹 쥐며) 제길...! 조금만 더 운이 좋았더라면...!

작남 (상대 1을 바라본다) 아니. 저건 이미... 운의 경지가 아니야.
 믿음이다. 자신을 향한 강한 믿음이 패를 끌어들이는 거다...!

상대 2 (자신이 버린 패로 고개를 돌리고) 나는 망설였어.
 나 자신을 믿지 못했어... 지는 게 당연해.

상대 1 져장.. 완패로군.

상대1,2 너머로 작남과 하늬 마주보고 대화한다.

작남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올라오다니... 대단해.
 마지막에 보여준 국사무쌍은 정말이지 놀라웠다. 대체 어떻게 수련한 거지?

하늬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되더라고요. (손을 내밀며) 재미있었어요.

악수하는 하늬와 작남.

돌아서 나가는 하늬의 뒷모습이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작남 v.o 진정한 국사무쌍...! 용이 되었구나, 하늬...!

12. 학교 / 아침

조회 시간. 담임이 교탁 앞에서 출석을 부른다.

하늬를 부르자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는다. 비어있는 하늬의 책상.

담임 뭐야. 마하늬 또 안왔어? 시험날부터 앤 무슨 일이라...?
 (경은, 은지, 지혜 쪽을 보며) 너넨 뭐, 아는 거 없어?

서로를 쳐다보다 고개를 내젓는 세 사람.

그 가운데 은지가 말을 꺼낸다.

은지 하늬는 대체 어딜 간 걸까? (걱정스러운 듯) 그동안 연락도 없고...
경은 3일이나 무단결석이 말이 돼? 진짜 어디 가서 죽은 거 아냐?
지혜 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책을 보며)

경은 핸드폰을 보다 뭔갈 발견하고 놀란다.

경은 야.. 이거 봐봐.
지혜 뭔데 그래?

경은의 주변으로 모이는 지혜와 은지.
핸드폰 화면에 있는 것은 KMJ리그에서 우승한 하늬의 인터뷰 기사.
은지, 경은, 지혜 모여서 기사를 보던 도중 교실 뒷문이 벌컥 열린다.

하늬 언니 왔다.

친구들 격양되어 하늬를 맞이한다.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깨고 앞문이 열린다.

반장 야! 마하늬 너 결석 때문에 쌤이 교무실로 오래!

뒤돌아 웃는 하늬의 얼굴.

-END